

데스크 시각

윤장현호(號)의 경고등



김미은 문화1부장

어느 금요일 오후, TV 리모컨을 돌리며 시간을 보냈다. 이날 화제는 김현 의원과 대리기사 폭행사건. 평일 오후 시간 4개의 중편 채널은 실 새 없이 기사와 좌담 등을 쏟아냈다. 한 시간 전 저쪽 방송에서 비난을 퍼붓던 사람이, 금세 다른 방송으로 옮겨와 열변을 토했다. 확인되지 않는 '설'이 난무하고 인격 모독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날, 약속을 마친 후 밤 10시 즈음 택시를 타고 귀가 중이었다. 택시 기사 역시 동일 사건을 다른 프로를 취회 중이었다. 50대 중반 기사가 듣고 있는 건 공중파가 아닌, 팟 캐스트. 자연스레 사건 이야기기 나왔고, 기사는 "TV, 라디오 뉴스에서

나오는 건 다 거짓"이라며 "국민 TV를 꼭 보라"고 했다. 어느 언론이 사실을 말하는가의 여부를 떠나, 나라가 완전히 반으로 쪼개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시장 취입 후 광주 문화관에서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 소름 없이 짝 막혀 있는 느낌, 논의나 대화 없이 한쪽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는 기분이다.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마이웨이'.

내정설과 들러리

광주시 산하 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대표적이다. 오늘 공모 마감을 앞둔 광주시립미술관장은 오래 전부터 내정설이 파다했던 자리다. 사장이 이렇다 보니, 관장직을 맡아 비전을 펼쳐보이고 싶었던 이들은 주춤하게 된다.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한 인사는 답답한 마음에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결국 마음을 접었다. 자리를 둘러싼 논란 뿐 아니라 문화계가 이곳저곳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도 많아졌다. 상식에 어긋나는 요구사항을 들이치는 경우도 눈에 띈다. 자신들이 함께 했던 '꿈'의 실현을 위한 의견이 아니

라, 개개인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쫓는 의견들 뿐이다. 사실, 새로운 세력이 임성하면 새로운 세력이 뜨는 건 일정 부분 용인된다. 권력자들 등에 업은 '시장의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다. 그래서 일련의 사건을 두고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당신들은 깨끗했나"며 항변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윤장현 시장이 '공천 테러'라는 비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건 기존 행정가, 정치인 시장과 다른 '새로움'을 바꿨던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오랜 시민사회 활동으로 다져진 도덕성과 공정성에 높은 점수를 줬던 이들이 많았다. 상대적으로 기득권에서 멀었던 젊은층, 문화계가 적극 지지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윤 시장의 조반 성적표는 초라하다. '세월호월' 사건과 관련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경고등이 켜졌다. 일련의 인사 문제는 기를 올렸다. 윤 시장은 다양한 대화 창구를 열어둘 필요가 있다. 물론 무작정 발목 잡기가 아닌,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들의 '선'이 전체되어야 한다. 격렬히 토론하고, 싸우지만 도출된 의견을 실행하는 데 '윤인'하는 게 바로 윤시장이 몸담았던 시민사

회의 장점이 아니던가. 광주 문화계는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 비엔날레는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앞두고 있다. 2기 대표 체제를 맞은 문화재단도 기금 확충, 독립성 확보, 사업 재편 등 해결 과제가 많다. 비전 대신 자리 탐내는 자 며칠 전 부산국제영화제 취재를 다녀왔다. 내년이면 스무살이 되는 영화제 측은 올해 성장통을 끝내고 성년을 차분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부러웠다. 20년 된 광주비엔날레는 다시 또 성장통을 앓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이용관 집행위원장은 16년간 영화제를 이끌었던 김동호 명예위원장이 남긴 유산 두 가지를 들었다. 초심과 청렴. 초창기 함께 그렸던 꿈을 잃지 않는 것, 겸손과 반성. 그리고 사욕을 쟁기지 않는 것. '자리'만 탐하고, 정작 '비전'은 함께 나눌 생각이 없는 자, 자리를 차지하면 군림하고, 세를 과시하려는 이들이 세겨야 할 대목이다. 윤장현 호(號)가 문화계, 나아가 광주 전체에 남길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 /mekim@kwangju.co.kr

社說

소음피해 군 공항 이전 정부가 지원 나서야

전국에서 소음피해를 가장 많이 주고 있는 광주 군 비행장 이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3조5000억원이 넘는 사업비 총량과 이전부지 확보 등 선결과제가 관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만큼 정부 도움이 필수적이다. 광주시는 지난 13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첫 행정 절차로 국방부에 사업 건의서를 제출했다. 시가 먼저 새 공항 개발 비용을 마련해 지출한 뒤, 기존 공항 부지의 매각 대금으로 매우는 '기부 대양여'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다. 광주시 건의서에 따르면 오는 2017년까지 신공항 이전 대상을 선정하고, 2022년까지 옮기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공항 건설 비용으로 모두 3조545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부지 개발 수입은 3조5685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시의 추산이다. 전국 15개 공항 가운데 평균 소음도 87데시벨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광주 군 공항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다. 광주시가 먼저 개발에 들어갈 돈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순탄하게 큰 일을 풀어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역민들은 지난 1964년 광주 군공항 창설 이후 영공안보에 동참하기 위해 목숨과 각종 피해를 감수해왔다. 따라서 국방부 등 중앙정부는 방관할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전을 주도해야 한다. 가뜰이나 살림살이가 어려운 광주시가 이같은 구상을 추진하고 나섰는지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 광주 군공항 인근 5만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과 무안공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이전은 거스를 수 없다. 정부는 광주시의 현안을 외면해선 안 된다. 군 공항 이전이 원만하게 이뤄지는 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호남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공약과도 부합하는 일이다.

5월 단체 사분오열, 시민은 안중에 없다

5·18 유족회와 5·18 부상자회, 5·18 구속부상자회 등 5월 관련단체를 하나의 공명단체로 통합해 5월 정신을 시대에 맞게 재정립하자는 5·18 공명단체 설립 추진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한다. 5월 단체들이 주도권 다툼 등을 지속하면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 때문이었다. 이들 3개 단체는 지난 2008년 "5·18 정신 계승의 주제로 출발하겠다"며 공명단체 추진을 선언했으나 대의원 수와 정관 제정 시기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 6년째 표류하고 있다. 5월 단체의 불협화음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주 열린 총장축제와 관련, 5·18 사적지인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에 주무대를 설치해선 안 된다는 입장고 단체의 의견이 맞서 난항을 겪었다. 또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문제와 5·18 기념재단 이사장 선출, 5·18 민중항쟁 29주년 기념행사 무대 설치 등을 놓고 끊임없이 파열음만 내왔다. 5월 단체들이 하나의 단체로 거듭나 5·18 기념행사는 물론 5월 정신의 전국화·세계화를 바랐던 지역민의 뜻을 그들이 외면한 것이다. 시민들이 5월 단체에 등을 돌린 이유다. 공명단체 등록이 이뤄지면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합법적인 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5월 단체의 재정 개선은 물론 5·18 정신 계승 사업이나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도 기득권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제 발등을 찍는 격'이 아닐 수 없다. 5·18은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아닌 한국 민주화의 초석으로서 광주,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로 통합해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게 5월 정신을 살리는 길이다. 지역 정치권과 광주시도 눈치만 보면서 18 기념재단 이사장 선출, 5·18 민중항쟁 29주년 기념행사 무대 설치 등을 놓고 끊임없이 파열음만 내왔다.

은편칼럼



심상돈 동아병원 원장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 보조를 맞추기 보다는 그저 따라가기도 벅하다. 2~3년만 지나면 구식이 된다. 직업인으로서 의사의 역할도 그렇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의사들은 크게 세 가지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선 병원에서 환자 진료에 주력하는 의사, 대학병원과 연구소에서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는 의사 그리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문 분야의 의사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는 의사다. 각자의 위치와 현안과제는 다르지만 모두 좋은 의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의사란 무엇일까? 지금까지는 환자를 열심히 진료하고 잘 치료하여 아픈 사람을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좋은 의사가 되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좋은 의사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다. 대한사회협회는 시대에 맞는 의사상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의사를 기대하며

(醫師像)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확립해 나가고 노력하는 의료인들과 예비 의료인들을 위해 진정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과 덕목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2014 한국의 의사상'을 만들었다. '한국의 의사상 version 2014'라고 할 수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한사회협회의 의정정책연구소를 통해 의협과 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 4년간 노력하여 의사들이 전문 직업인으로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역할을 환자 진료, 소통과 협력, 사회적 책무성, 전문 직업성, 교육과 연구라는 다섯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제적으로 사용가능한 수준의 의사상을 만들고 이를 의료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하였다. 첫째 가치는 '환자 진료'다. 역량은 의학 지식, 임상 술기능력의 배양, 전문가적 태도로 환자·보호자와의 관계를 유지, 환자 안전을 위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신속한 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다. 설명하면 의사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현재 한국의료체제와 상에서 환자와 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이를 유지 발전시킬 책임이 있음을 말한다. 둘째 가치는 '소통과 협력'이다. 역량은 환자, 환자 보호자, 동료 의료인, 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이 있다. 이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의사-환자 관계가 성립 될 수 있으며 진단이나 치료의 결정과정에 환자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셋째 가치는 '사회적 책무성'이다. 역량은 환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과 보건을 유지, 보건의료정책 결정 참여, 미래 의료변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내 제반 구호와 국제 제반 구호활동을 이해하고 국제 교류에 참여하는 것이다. 넷째 가치는 '전문직업성'이다. 역량은 윤리와 자율성에 기초한 진료, 환자 비밀의 보호, 환자-의사관계를 직무상의 범위로 한정, 전문적 주도의 자율규제와 자기 관리이다. 이는 본인의 진료 역량을 과장 홍보하지 않고, 직무윤리에 기초한 전문적 판단의 자율성, 진료를 위한 적절한 태도, 진정성과 이타성의 덕목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가치는 '교육과 연구'이다. 의사는 과학적 탐구정신을 갖고 평생 학습을 하는 동시에 교육자, 연구자로서 최신 의학지식을 개발 습득, 보급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해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요즘 의과대학에 입학하기가 과거에 비해 너무 어려워졌다. 거의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고등학교 시절 감당하기 힘든 경쟁을 통해 의과대학 진학 후에도 상당한 분량의 학사일정을 소화해야 하며

이 또한 쉽지는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의 모습에 대해 진정한 고민을 할 시간도 부족할 것이다. 과거 확장시절 친구, 선배 배들에게 귀동냥으로 들으며 진정한 의사의 모습에 대해 고민했던 기억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최근 의과대학 학사과정의 의사학, 의사윤리학, 의료경영학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그동안 의로게 안팎의 자성과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물론 정규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의사로서의 인생관으로 자리잡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또한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발전하고 깊어지리라 생각한다. 의사의 면허가 본인의 노력 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와의 암묵적인 합의에 의해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Version 2014, 한국의 醫師像' 아직은 부족하다. 추상적이고 두루뭉술하다. 가치와 역량에 대한 해설이 있지만 또한 각각을 실천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한데 아직 없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이는 의료인으로서 역할과 덕목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의 시작이라고 보면 좋겠다. 지속적인 Version upgrade를 기대해본다. 질문을 하고 또 하다보면 이해도 깊어지고 시대에 걸맞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

기고

인도에서 자유롭게 걸어보고 싶다 오늘 '흰 지팡이의 날'



장영철 광주시각장애인 연합회 취업상담 소장

매년 10월 15일은 시각장애인의 상징인 흰 지팡이의 날이다. 지난 1980년 UN세계장애인총회에서 제정된 흰 지팡이의 날은 올해로 35주년을 맞고 있다. 그런데 흰 지팡이의 날을 맞은 우리나라는 인도에 설치된 수많은 볼라드 때문에 시각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걸을 수가 없다. 현재 입산부, 장애인, 어르신들을 위한 편의시설 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엄연하게 법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주

정자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사람이 다녀야 할 인도에 막막을 설치한 것이다.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란 단어를 살펴보자. 태풍으로 배가 침몰 하지 않도록 고정하기 위한 것이 볼라드이다. 그런데 사람이 다녀야 할 인도에까지 볼라드가 설치돼 행인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볼라드는 입산부, 어르신, 장애인 의 이동 자유를 가로막고, 지팡이를 짚는 어르신들에게도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학교 주변도 마찬가지다. 좁은 인도와 차도사이에 경계막이 설치돼 있지만 길 한 가운데 볼라드가 있어 위험천만해 보인다. 학교를 다니는데 많은 학생이 다치거나 부상을 당하고 있어 거야말로 도로 위 지뢰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인도에 서있는 볼라드 종류도 가지가지다. 무쇠로 만들어진것부터 스텐과 합성으로 덧씌워져 있는 것도 모자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것들이 보통 성인의 무

릎 이하의 높이로 설치되어 있다. 직사각형 모양부터 원형까지 인도 위 부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것을 거리 어느 곳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계층 간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져있다. 시각장애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살아가는 게 힘이 들고 어려운데 인도를 걷는 것까지 고통스럽다. 국민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이동 자유마저 박탈당한 채 사고위험을 느끼야 한다는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도시를 개발할 전선 등을 지하로 매설하는 게 세계적인 흐름이다. 외국의 인도와 도로를 살펴보면 친환경적인 잔디나,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리에서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교통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다. 잔잔하게 흐르는 물처럼, 차는 차도로 달리고 사람은 인도에서 걷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거리에는 유급 자원봉사자로 장애인, 어르신들이 질서유지와 환경정

리, 도로 정비 등 활동에 참여시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으며 가로등 위에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서 인도에 불법 주차차를 단속하고, 주차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걸어 다녀야 할 인도에 함부로 설치되고 있는 볼라드는 국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국민의 권리와 주권을 무시하며 장애발생을 유발하는 주범이다. 시각장애인들에게 흥기와 같은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에 혈세를 쓰는 것은 장애인 차별을 획책하는 길이다.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10월 15일 흰 지팡이의 날. 모든 국민이 인도에서 명들지 않고 자유롭게 걸어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해본다. 이를 위해서는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가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한다.

無等鼓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신과 악마, 대지의 소유자 등 초자연적 존재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가장 큰 제물은 '생명'이었고, 그 중에서도 살아있는 인간을 생매장하는 것이 최고의 희생이었다. 독일의 언어학자이자 동화작가인 그림(Jacob Grimm)은 "사람들은 종종 인간을 포함한 살아있는 생물이 건물의 기초 아래에 묻힐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는 건축물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땅에 대한 희생으로 간주됐다. 사람들은

에밀레종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인신공양 사례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에밀레종'으로 알려진 국보 29호 성덕대왕 신종이다. 신라 35대 왕인 경덕왕의 분부에 따라 만들어진 종의 소리가 나질 않자 가난한 집의 어린 딸을 데려다 펼 펼 끊는 쇠물 속에 넣어 종을 완성했다는 이야기가 유명하다. 에밀레종의 소리를 재현할 수 있는 '신라대종'이 내년이면 완성된다. '에밀레~'하는 슬픈 종소리는 들을 수 없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정세가 심각한 이때, 삼국을 통일해 낸 신라의 기상을 소리로나마 되새길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 /홍형기 경제부장redplane@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고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부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 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